정보

개요
곡명: Oboe Concerto in C major, K. 314/271k

작곡가: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작곡 시기: 1777년 4월 1일 –9월 22일 사이, Salzburg에서 쓴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 연주 기록: Giuseppe Ferlendis를 위해 썼으며, 1777–1778년 Mannheim에서 Friedrich Ramm이 반복 연주했다. Salzburg 초연 날짜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장르: 오보에와 관현악을 위한 3악장 협주곡

조성 ·길이: C장조, 약 20분

관련 판본: 같은 음악을 바탕으로 한 D장조 플루트 협주곡 제 2번 K. 314/285d가 전한다.

Wikipedia: Oboe Concerto (Mozart)

Wolfgang Amadeus Mozart의 Oboe Concerto in C major, K. 314/271k는 Allegro aperto, Adagio non troppo, Rondo. Allegretto 로 이어지는 협주곡이다 . C장조의 밝은 관현악 도입, 오보에의 아리아 같은 선율, 론도의 재치가 세 악장을 잇는다. 이 작품은 오보에 원곡과 D장조 플루트 판본이 함께 전승되며, 두 독주
악기의 음역과 발음 차이가 곡의 여러 표정을 만든다.

작곡과 초기 연주

International Mozarteum Foundation의 작품 목록은 이 협주곡을 1777년 4월 1일에서 9월 22일 사이 Salzburg에서 쓴 작품으로 배치한다. 4월 1일 Salzburg 궁정악단에 합류한 오보이스트 Giuseppe Ferlendis 를 위해 썼다는 추론은 Mozart의 편지와 당시 인사 기록에 근거한다. 다만 Mozart가 Salzburg를 떠날 때 파트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 Ferlendis가 그곳에서 초연했다고 날짜를 붙여 말할 수는 없다

.

Mozart는 1777년 11월 4일 Mannheim에서 이름을 잊은 오보이스트에게 이 협주곡을 선물하고 파트를 필사 중이라고 아버지에게 알렸다. Neue Mozart-Ausgabe와 Schott 자료는 그 연주자를 Friedrich Ramm으로 연결한다. 1778년 2월 14일 편지에서 Mozart는 Ramm이 전날 이 곡을 다섯 번째로 연주했고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썼다. 문서로 남은 초기 연주는 Salzburg보다 Mannheim의 이 연주 기록에 더 분명하게 닿아

있다.

자료의 소실과 발견

Mozart의 자필 총보와 Ramm이 사용한 연주 자료는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Bernhard Paumgartner가 1920 년 Salzburg Mozarteum 문서고에서 역사적인 오보에 파트 세트를 재발견하면서 C장조 원곡이 다시 알려졌다. 이 파트는 Mozart 사후 빈 필사공방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필사 오류와 아티큘레이션의
불일치도 남아 있다.

1971년에는 C장조로 된 9마디 자필 스케치가 발견되었다 . 이 단편은 오보에 판본이 D장조 플루트 판본보다
앞선다는 판단을 보강하지만 , 전곡 자필 악보가 발견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오보에판의 첫 공개 출판은 Bernhard Paumgartner 편집으로 1948년 London의 Boosey & Hawkes에서 이루어졌다 .

오보에 원곡과 플루트 판본

Mozart는 Mannheim에서 이 음악을 D장조 플루트 협주곡 제 2번 K. 314/285d로 다시 작업했다. 플루트
판본은 조성만 옮긴 악보가 아니라, 독주 음역과 관현악 세부, 피날레의 속도 표지까지 플루트에 맞게 손질한 재작업이다 . 플루트 판본의 자필 원고도 남아 있지 않으므로, Mozart가 어느 정도까지 직접 완성했는지는 판본 연구에서 여지를 남긴다.

오보에는 리드의 선명한 어택과 짧은 음의 탄력으로 선율의 자음을 또렷하게 만들고, 플루트는 같은 선율을 더 길고 매끄러운 선으로 이어 간다. C장조와 D장조의 차이, 각 악기의 음역과 호흡 차이는 두 판본을 서로 다른 독주 악기의 말투로 듣게 한다.

소요 시간

전곡은 약 20분이다. Hyperion의 2019년 녹음은 20분 20초로 기록되며, 카덴차와 반복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시간은 조금 달라진다.

편성

기본 편성은 독주 오보에와 다음 관현악이다 .

목관: 오보에 2
금관: 호른 2
현악: 제 1·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 더블베이스

18세기 관행에 따라 오보에 두 대가 연주될 때 바순 한두 대를 저음 보강에 더할 수 있지만, Mozart가 총보에 항상 명시한 파트는 아니다. 작은 편성은 오보에의 발음과 현악의 투명한 화성을 가까운 거리에서 드러낸다.

세 악장의 구성

I. Allegro aperto

C장조의 관현악이 열린 음향으로 출발한 뒤 오보에가 짧은 상승 음계와 높은 지속음으로 들어온다. aperto 라는 표지는 선율의 시작을 명료하게 하고, 성악의 messa di voce 처럼 한 음을 부풀렸다가 가라앉히는
호흡을 떠올리게 한다. 빠른 패시지와 긴 선율이 교대하는 협주 소나타 형식에서 독주자는 관현악의 주제를 그대로 꾸미기보다 새 음형으로 받아친다. 악장 끝의 카덴차는 장식의 자유와 전체 비례를 함께 요구한다.

II. Adagio non troppo

F장조의 느린 악장은 오보에의 노래하는 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들려준다. 짧은 중앙부와 압축된 재현부를
가진 축약 소나타 형식 안에서 오보에와 바이올린이 두 번째 주제를 서로 이어받고, 현악은 긴 프레이즈가
가라앉을 공간을 마련한다. 성악적 선율의 끝을 급하게 닫지 않고 한 호흡 안에서 이어 갈 때, 리드 악기의
밝음이 깊은 칸틸레나로 바뀐다.

III. Rondo. Allegretto

C장조 피날레의 론도 주제는 오페라 부파처럼 분명한 표정과 빠른 방향 전환을 갖는다. Hyperion과 Hong Kong Philharmonic의 해설은 이 주제가 Die Entführung aus dem Serail의 Blonde 아리아 Welche Wonne, welche Lust 를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한다. 이 관계는 직접 인용이라기보다 선율적 회상의 사례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오보에는 짧은 장식과 카덴차를 통해 주제가 돌아올 때마다 발음의 표정과 속도를 바꾼다.

관악 독주자를 위한 설계

Ferlendis를 위해 썼다는 배경과 Ramm의 Mannheim 연주는 이 협주곡이 뛰어난 관악 독주자를 상정한
작품임을 보여 준다. 첫 악장의 높은 지속음은 호흡과 음정의 안정성을 동시에 시험하고, 빠른 음형은 리드의 탄력과 정확한 아티큘레이션을 요구한다. 느린 악장에서는 비브라토보다 긴 프레이즈의 방향이 먼저 들려야 하며, 피날레에서는 장식이 오페라 부파의 재치와 맞물려야 한다.

세 악장 모두 독주 카덴차를 갖는다. 카덴차는 악장 끝에 기교를 덧붙이는 부분에 머물지 않고, 관현악이
제시한 재료를 오보에의 언어로 다시 말하는 짧은 독백이 된다. 독주자가 호흡을 길게 유지하면서도 문장의 자음과 모음을 구별할 때, C장조의 밝음은 단순한 명랑함보다 말하듯 정교한 표정으로 나타난다.

작품의 전승과 레퍼토리

K. 314는 오보에 레퍼토리의 중심에 있으면서, 한 음악이 서로 다른 독주 악기의 판본으로 살아남는 과정을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1920년 Paumgartner의 발견과 1948년 초판은 잃어버린 것으로 여겨졌던 C 장조 작품을 무대에 되돌렸고, 1971년 자필 단편은 원곡의 선행성을 뒷받침했다 . 플루트 판본과의 비교는 Mozart가 관악기의 음역과 발음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상했는지 보여 준다.

□□ □□

- KV 314, Concerto in C for oboe and orchestra (International Mozarteum Foundation)
- Neue Mozart Edition, □□□ □□□ □□
- Schott Urtext □□
- Schott □□□□□
- Oboe Concerto in C major, K. 314 (Hyperion Records)
- Mozart Oboe Concerto □□□□ (Hong Kong Philharmonic)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11:53 UTC by □□□
Updated 2026-10-04 10:11:53 UTC by □□□